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대한항공은 적은 마일리지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 7회로 정기노선을 재편한 보스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스톤 로건공항에 들어오고 있는 대한항공 국적기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보스톤과 뉴욕등 제외 이유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상시화, 미주노선 약 14% 할인 효과
미주 노선 중 LA,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4개 도시만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한항공이 7월부터 미주 4개 노선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할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보스톤을 비롯한 뉴욕 등 동부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할인 프로그램 '보너스 핫픽'은 대한항공이 전 대륙 노선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적은 마일리지로 좌석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대상 노선과 구매·탑승 기간은 정기적으로 바뀐다.

과거 대한항공이 특정 노선에 한해 비정기적으로 마일리지 할인 행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전 세계 노선에 적용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할인을 활용하면 비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인천-LA 노선의 경우 기존에 7만 마일이 있어야 마일리지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6만 마

정기 휴간 안내

7월 28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매사추세츠 임신 중 합병증 10년내 2배로 증가

흑인 등 유색인종의 발병률 백인에 비해 높아 보건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의 문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거주하는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는 합병증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 보건부가 밝혔다.

임산부중증질환(severe maternal morbidity)이라고 알려진 이 합병증은 예측하지 못했던 심정지, 급작스런 고혈압,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극한의 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임신 중 합병증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 임신부에서 가장 많았다.

주 보건부는 이처럼 치명적인 임신출산 합병증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두배로 증가했다고 12일 보도자료 >>5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마트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듣는다

H마트 매장 케이팝, 스포티파이 공식계정 개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에 공식 계정 및 플레이리스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H마트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

는 매장 내에서 재생되고 있는 인기 K-Pop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리스트는 매달 새로운 음원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은 H마트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매장에서 재생되는 노래를 손쉽게 찾고, 개개인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추가할 수 있다.

H마트는 이를 H마트 웹사이트, H마트 모바일 앱, 그리고 H마트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Pop 음악 청취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에게 H마트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op 음악은 이미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이 아닌 고객들에게 노래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H마트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H마트 공식 계정은 스포티파이의 H마트 페이지 혹은 포스터 속 Spotify 코드를 스캔해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참전용사 보은 및 추념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는 올해 참전용사 보은 및 추념식 행사를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보스카웬에 위치한 뉴햄프셔 주립현충원에서 개최한다.

NH한인회는 매년 7월말 참전용사 행사를 개최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

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면서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일시: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뉴햄프셔 주립 현충원 110 Daniel Webster Hwy Boscawen, NH

참석대상: 참전용사와 가족, 주한 미군과 가족들, 모든 동포들.

bostonkorean@hotmail.com

메인 한인회 광복절 기념 겸한 고향의 날 행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인 한인회(회장 안영례)는 8월 12일 토요일 11시 메인 소재 무지개 교회에서 광복절과 추석을 겸한 고향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체험관을 비롯해 제기차기, 공기놀이

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스톤총영사관에서는 이동 영사업무를 이날 행사에 맞춰 개최한다.

한인회는 “주위에 아시는 분에게 알려주시고 모두모두 참석을 하시고 즐거움 같이 하시길 바란다” 고 참석을 당부했다.

크라잉넛, 세이수미 K-인디 뮤직 무료 뉴욕 공연 19, 20일 개최

19일 밴드 크라잉넛, 세이수미 / 20일 싱어송라이터 백예린
패스트 트랙 입장, 7월 17일 정오부터 예약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이 7월 19일과 20일 양일 저녁 7시 30분 <K-인디 뮤직 나이트(K-Indie Music Night)> 공연을 개최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지는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 주최의 한국문화예술 특

집 페스티벌 “코리안 아트 위크(Korean Arts Week)”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7월 19일에는 한국인디록 1세대 밴드 크라잉넛과 한국 서프록 밴드의 대표주자 세이수미가 참여한

다. 팝의 거장 엘튼 존이 극찬한 부산 출신의 4인조 밴드 세이수미는 2019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음반과 노래 부문을 모두 거머쥔 밴드다. 인디팝/락, 서프록 등 다양한 장르에 “세이수미” 색을 가미한 독특한 음악들을 선보인다.

한국 대표 펑크 록 밴드 “크라잉넛”은 지난달 발표한 신곡 ‘야근’을 비롯하여 ‘말달리자’, ‘룩셈부르크’, ‘서커스매직 유랑단’ 등 히트곡들을 연주한다.

7월 20일에는 싱어송라이터 백예린의 무대가 펼쳐진다. 2012년 K팝 듀오인 15&의 일원으로 데뷔한 백예린은 2015년부터 연이어 발매된 앨범을 통해 따뜻한 목소리와 개성으로 어필한 싱어송라이터다. 서울부터 R&B, 드림 팝부터 런치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백예린만의 유니크한 음색과 감미로운 분위기를 전달한다.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의 메인 야외 공연장인 댐로쉬파크(Damrosch Park)에서 개최되며, 무료이지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마감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입장 신청은 7월 17일 정오부터 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 또는 “썸머 포 더 시티(SummerfortheCity.org)”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 및 페이스북(@KoreanCulturalCen-

terNY)과 인스타그램(@kccn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리안아트위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링컨센터 웹사이트(<https://lincolncenter.org/series/summer-for-the-city/Korean%20Arts%20Week>)에서 확인 가능하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재미과기협 제 52대 "손용호 회장단" 출범

8월 달라스에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3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KSEA) 제 52대 손용호 신임회장단이 7월부터 출범한다.

1.5세인 손용호 신임회장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재료공학과에서 2개의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손용호 교수의 KSEA 회장 임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손용호 회장과 오태환 차기 회장(로체스터 공대 교수)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원들은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KSEA사무국에서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후 출정식을 갖고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3)를 포함한 향후 1년 간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8월 2일-5일까지 개최되는 2023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3)는 KSEA 와 한국 과 총 (KOFST, 회장 이태식), 한국연구재단 /한미 과학 협력 센터 (NRF/KUSCO 이광복 이사장)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36회째인 UKC 2023은 달라

스의 하얏트 리젠시 DFW호텔에서 개최되며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이 모여 첨단과학기술 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에 향상을 도모한다.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201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 (Barry Barish) 스토티브룩 대학교 수 겸 Caltech 명예교수가 “중력파로 이해하는 우리의 우주” 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 여성 최초로 스탠포드대 중신교수로 임명된 이진형 교수와 전 세계 전문 저널의 25% 를 발간하는 출판사 '엘스비어'의 첫 동양인 회장인 지영석 회장도 기조세션에서 강연한다.

3개의 기조세션 이외에도 물리학/공학, 생명과학/공학, 컴퓨터 과학/공학, 미래교육 등 4개 분야의 Keynote Symposium이 개최된다. 물리학/공학 심포지엄은 로봇공학자이자 로봇 문화 확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데니스 흥 UCLA 교



7월 1일 출범한 KSEA 52대 회장단 / 앞줄 가운데가 손용호 회장

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생명과학/공학 심포지엄은 재생의학의 혁신적 발견을 주제로 예모리대 윤영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가 강연한다.

컴퓨터과학/공학 심포지엄은 듀크대 김진상 교수가 양자컴퓨팅을 주제로 리드한다. 이외에도 14개 테크니컬 분야별 심포지엄과 20개의 기관별 포럼이 진행되며 신진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SEED 경력

개발 워크숍도 병행하여 개최된다.

UKC 2023에서 수여되는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은 김재훈 보잉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여하며 과총회장 표창으로 박지웅 시카고대 교수가 과학인상을, 김재홍 예일대 교수가 공학인상을 수상한다. UKC 2023 시상식에서는 KSEA에서 선정한 올해의 유망과학자로 하버드의대 이창림 박사, 유망공학자 정호영 UC Davis 조교수가 선정돼 각각 1

만달러의 KSEA 신진연구자 지원금을 수상한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KSEA는 그간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 과학기술 전달에 앞장섰으며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1.5세, 2세, 3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영입, 세대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UKC 2023 프로그램 및 등록 : <http://ukc.ksea.org>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장차/ 치료 후 시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술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도려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함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시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특수권리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충북역) / H+양재병원(신림역) / 세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정릉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강역)



휴람의료사업장
김수남

617.949.1766

키오번호 : 011-3499-4040D: haramkorea)
이메일 : haram@haram.kr
홈페이지 : www.haramkorea.com



매사추세츠 임신 중 합병증 10년내 2배로 증가

▶▶1면에 이어서
를 통해 발표했다. 아시아인 임신부들의 합병증도 10년간 약 두배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간 총 678,382건의 임신 및 출산에서 발생한 4,092건에 달하는 임신 합병증을 분석한 것으로 이 합병증은 매년 약 8.9%가량 증가해왔다. 수치적으로는 1만명당 52건에서 2020년 1만명당 100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흑인 임신부들의 경우 합병증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합병증을 백인 여성에 비해 약 50% 더 많이 겪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히스패닉 및 아시아인피식 여성들에서도 백인보다 2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발병율도 높았다. 특히 40대 이상의 임신 여성에서 합병증이 높았고 흑인 40대 이상이 최고치였다. 이들은 그룹은 1만명당 238.6명이 합병증을 겪었다.

보건부의 하프사토 디옵 박사는 “이처럼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흑인 여성들이 새로 발달된 의학적 지식과 의학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말하고 “이는 인종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의한 결과로 인식된다” 고 강조했다.

보건부 장관인 로비 골드스타인 박사도 “이는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결과” 라고 지적했다.

다음 박사는 이 문제는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일이라며 “과거에는 우리는 흑인 여성이란 점이 합병증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흑인 임신부들이 비만과 높은 연령으로 인해 더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박사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 건강보험, 그리고 병원 접근 등의 문제로 결국 정치와 구조적인 정책의 문제” 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흑인을 비롯해 장애인들에게서도 합병증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결국 부와 건강보험의 불균형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정부는 현재 시범 프로그램으로 임신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격 혈압 측정, 또한 미드와이프의 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500여 진료기관에 인종차별을 제거하고 친절한 진료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자동문 지나듯 출국"... 인천공항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는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인식 정보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의 사전등록을 7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이 얼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는 7월 10일 사전등록에 필요한 전용 모바일 앱을 오픈했으며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Smartpass'를 검색해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개인 여권의 정보와 생체(안면)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앱을 통해 정보를 등록해둔 여객은 매번 출국 시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서 확인받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사전등록 여객 전용 라인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이 가능하다.

2022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실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체인식 수속절차를 이용한 여객의 88%가 서

비스에 만족하고, 75%는 여권·탑승권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생체인식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TA에 따르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체크인 시간은 10%, 탑승 시간은 40%가량 감소해 출국수속 시간 단축으로 여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되는 안면인식 시스템은 이미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싱가포르 창이, 일본 나리타 공항, 이탈리아 베니스 마르코폴로 공항에서 출국자 본인확인에 이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붐비는 미국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안면인식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아이폰에 업로드된 신분증을 제시해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I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SA 프리체크(Precheck) 회원이 되어야 한다. 프리체크는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완료하면 짧은 줄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15777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보스톤 정관장 보낸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Dorchester, MA 01950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 판매 금지 추진

앱 통해 확보한 개인 위치정보 판매 전면 금지 날씨 정보 앱 등 각종 개인정보 수집은 여전히 허용 법집행기관 불법이민자 단속, 낙태 여성 추적에 악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가 50개 주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의 악용을 막고자 수집한 위치 정보의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 달 셀폰으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안 '로케이션실드액트(Loaction Shield Act)'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법원의 명령없이 주민들의 위치 정보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 등 각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치정보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때론 각 스마트폰의 행동패턴을 통해 소유

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밤시간에 거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집 주소이며 다른 데이터 정보와 함께 교차 검토하게 되면 누구의 집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접근은 그동안 커다란 논란으로 떠올랐었다. 특히 군이나 정보기관이 점차 대량으로 이런 경로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수집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구매 가능한 데이터로 인해 과거 법집행기관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란 전통적인 견해를 거의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단

속한 사례도 있다. 이번 법안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제 3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제공이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앱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소유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날씨 정보나 우버 등 라이드헤일링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만 이들 주들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시 스마트폰 앱 사용자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 수집된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를 일부 제한토록 했었다. 매사추세츠처럼 위치정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은 신디 크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상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힐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제화 전망이 높은 편이다. 크림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내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보스톤과 뉴욕등 제외 이유

▶▶1면에 이어서
일이면 마일리지 티켓 구입이 가능해져 14% 할인이 되는 효과를 낸다.

이병훈 대한항공 뉴욕지점장은 "현재 마일리지 할인은 미주 노선 중 LA,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4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며 "보스톤, 뉴욕, 워싱턴의 마일리지 할인이 적용될지는 미지수" 라고 말했다.

이 지점장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할인 프로그램은 정기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추가 증편 노선에만 적용된다. 이 지점장은 "뉴욕, 보스톤 워싱턴 등은 추가편이 없는 경우 만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일리지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정기노선으로도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증편을 할 정도일 때에만 이 마일리지 할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지점장은 "보스톤의 경우 주 7회 운항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리지 할

인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 지점장은 마일리지 할인 프로그램이 비즈니스석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비즈니스 석은 현재 추가 증편을 해도 충분할 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프레스티지석이 제공되는 노선은 ▲세부 ▲텔아비브 ▲두바이 ▲브리즈번 ▲오클랜드 등 5개 노선이며 세부 노선의 경우 편도 3500마일, 왕복 7000마일이 할인되고 나머지 4개 노선의 경우 편도 5000마일, 왕복 1만 마일이 할인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시카고 4개 미주 노선은 편도 5000마일, 왕복 1만 마일이 할인된다.

한편, 보스톤 노선은 현재 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비수기인 11월달에는 주 5일 운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집값 비싼 케이프코드, 소방관들 월급에 살집이 없어

집값 비싸져 소방관 구하려 소방서 외곽으로 이동, 비상시 도달 시간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 벽 기자 = 케이프코드의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타운들은 소방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운내 거주 규정을 완화해 소방관들이 타운 밖에서 살도록 허용하는 차선책을 선택했지만 긴급출동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소방관 인력은 약 2건의 앰블런스 전화에 출동하면 바닥이 나게 되고, 만약 비번인 소방관 인력까지 필요한 경우 이들은 몇시간이 걸려서야 출동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감소하는 소방관 인력과 반비례로 케이프코드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스터블 카운티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2만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재 신고 전화는 16% 증가했다. 화재가 아닌 비상사태는 1년 당 7만 건으로 24% 증가했다.

하이엔스 소방서 피터 버크 서장은 매사추세츠 주내 집값이 비싼 타운에서는 이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타운의 경우 바로 타운의 경계에 살기 때문에 멀지 않지만 케이프코드는 다른 이야기다.

케이프코드는 원래 다리로서 이어진 기다란 섬으로 코드의 끝에서

다리 건너까지는 몇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의 소방서 존 버크 서장은 케이프코드의 소방관의 초봉은 \$55,000에서 \$75,000이며 이는 타운내 일반적인 가정이 벌어들이는 평균 \$210,000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많은 소방서들은 타운내 거주규정을 완화하고 있지만 대형 폭풍우가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타운 밖에 거주하는 인력 동원이 여의치 않게 된다.

백업요원이 부족하자 소방서는 더 많은 대원들을 고용해야 했으며 이는 더 많은 프로퍼티 세금과 주택비용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피터 버크 소장은 "이것은 아주 이상한 문제이며 쉬운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클랑크 하위치 소방서장은 "소방서의 업무와 비용 그리고 여러 자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 라고 말했다. 소방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인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소방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폴머스 소방서는 타운에 사는 소방관보다 다리 건너 육지에 사는 인력이 더 많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소방서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어 전전공공해 하고

있다. "60마일을 운전해야 하는데 20마일만 운전하면 되는 곳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의 일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고 래클랑크 소장은 말했다.

소방인력을 교육하는데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스토우, 스프링필드, 또는 브리지워터에 있는 소방 아카데미에 신규대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보내면 총 10주 훈련 및 식비 거주비는 \$25,000가 들어간다.

문제는 그렇게 보낼 인력마저도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80-100명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10-20명 정도가 지원한다. 좋은 후보들은 생활비로 인해 소방서의 고용제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케이프코드보다 인근 섬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단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증원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기가 어렵다" 고 낸터킷 소방서 마이클 크랜슨 소장을 말했다. "대원들은 이곳에 살지 않고 30마일 떨어진 육지에 살고 있기 때문" 이란다.

크랜슨 서장은 28명이 대원이 24시간 교대로 페리로 통근한다.

비상시 소방서는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대원, 공항 소방서 등 도와줄 인력을 차출하며 하이엔스 소방서에서는 보트



로 구조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미해상방위대에서도 인력을 파견한다.

크랜슨 씨는 "분명히 이는 큰 어려움이다. 이는 우리가 여기에 있기에 겪는 어려움이며 동시에 소방관들에게도 어려움이며 이들이 아무도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어려움" 이라고 밝혔다.

마타스비너드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곳은 응급구조대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원소방대원이다. 7명의 구조대원 중 2명은 페리로 통근한다.

넬슨 리츠 오크 블러프 소방서

장은 자원봉사 소방대원도 결국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소방대원들은 대대손손이 물려 받은 사람들이다. 현재 낮시간대 화재 신고에 출동한 인력은 서장과 부서장 두명 밖에 없다. 나머지는 일을 하다 중간에 멈추고 달려와야 한다.

리츠 서장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나와내 차다. 모든 화재 사건을 나 홀로 떠맡을 수는 없다" 고 그는 개탄해 했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에어컨 온도 낮춘다고 빨리 시원해지지 않아, 대신 이 방법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폭 찌는 폭염에 에어컨 온도를 최저치까지 낮춰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다.

집 에어컨의 온도를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과부하가 걸린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설정된 온도까지 낮추려고 계속 돌게 된다. 이 경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잡아 먹으며 동시에 에어컨디셔너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문가들을 인용, 10일 보도했다.

효율에너지경제를 위한 카운슬의 빌딩프로그램 수석연구원 제니 퍼 애먼씨는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것이 실내를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지 않으니 적절온도를 유지하라”고 권장했다.

밖이 더울 때, 계속 돌고 있는 에어컨에 과부하를 걸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게 된다. 전체 전력망에 부하를 늘리고 결국 단전 사태, 또는 단전 직전의 과부하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다. 이 같은 폭염 등 극한의 날씨에 전력망이 단절되는 경우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온도를 더 낮춘다고 빨리 시원해지지 않는다.

“가정용 에어컨은 수돗물처럼 작용하지 않는다”고 우스터폴리

테크닉인스티튜트(이하 WPI) 건축공학과 시차오 리우 교수는 지적했다.

에어컨 설정온도는 실내 온도가 그 온도보다 높을 때 에어컨이 작동을 시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즉 낮은 온도가 결코 에어컨디셔너의 냉방 용량을 높여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에어컨 온도를 60도에 설정하게 되면 70도에 설정해 놓는 것보다 시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설정된 두 온도에서 에어컨의 냉방용량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에어컨 용량을 벗어나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에어컨은 설정된 온도까지 낮추기 위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고 결국 에어컨의 수명 단축을 초래할 뿐이다.

가장 적절한 온도는
아테네에 있는 조지아 대학의 2014년 여름 캠퍼스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화씨 77도에서 77도 사이인 경우 편안하게 느꼈다.

“만약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 에어컨을 76에서 77로 설정해 놓을 수 있다”고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로렌스 조지아대학 교수는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도설정에 편안해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밖이 덥다면 화씨 77-



78도 또는 그 이상이라도 실내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느끼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외출시 적절온도 설정
오랫동안 외출할 때는 애먼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화씨 5도에서 10도 정도 높게 설정해 놓을 것을 권장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온도를 높게 설정해 두는 경우 연간 약 10%의 전력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온도를 5-10도 더 높게 설정해 놓는 경우 최소한 5%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미 전체적으로는 전력소비가 최대한 시간을 대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애먼씨는 밝혔다.

가장 더운 시간의 온도 설정
애먼 연구원은 “에어컨의 온도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아야 하는 시간은 바로 한낮 오후 가장 더운 시간대이다”라고 말한다.

에어컨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므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온도를 과격하게 낮추는 것보다 천천히 낮추는 것이 매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른 냉방 방법
정말 폭염이 지속되면 에어컨을 평상시 시원하게 느꼈던 온도로 설정해 놓아도 답게 느낄 수 있다고 리우 박사는 말했다. 그는 온도를 급격히 낮추기 보다는 실링팬을 켜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링팬은 거의 전력소모가 없이 시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아먼씨는 “만약 실링팬을 이용하는 경우 정말 많이 시원하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에어컨을 틀고 온도를 낮추기 보다는 팬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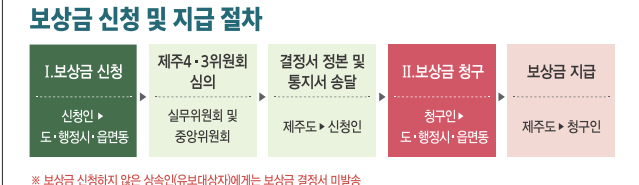
기타 방법
-가장 더운 때에는 블라인드나 셰이드를 내려 햇빛의 유입을 막는다.

-디시워셔, 오븐, 가스스토브드라이어 등 실내를 덥고 습도를 높게 만드는 것의 사용은 가능한 줄인다.

-실내 환기는 밤에 한다.

hsb@bos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중앙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원이 지급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 9천만원
- 수형인 :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천만원~9천만원)
- | | | |
|--------|--------|---------|
| 1~3 등급 | 4~8 등급 | 9~14 등급 |
| 9천만원 | 7.5천만원 | 5천만원 |
- 제외대상 :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서류(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준하여 발급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송의 5분요가

한줌 허벅지 만드는 5분 레전드 하체 스트레칭과 운동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빠지 힘들다는 부위가 바로 뱃살 다음으로 허벅지 둘레살이라 하죠? 특히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또 쉽게 빠지지 않는 하체 살로 고민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매일 5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1주일만 따라하셔도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5) 살빠지는 요가 | 허벅지 둘레살 빼주는 5분 타바타 편을 찾아 따라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Hip Lunge : 엉덩살 정리, 힙업, 다리 탄력 강화

1단계 두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접어 힙힌지(Hip Hinge) 해줍니다.
2단계 두다리를 꿇다가 뒤의 다리를 뒤로 뻗어 올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3단계 허벅지를 중앙으로 조이며 10번 이상 반복 후, 반대 다리도 해주세요.
4단계 무릎을 접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힌다면 벽에 손을 가져가 해주세요.



TIP! 무릎 통증을 예방하려면, 앞에 접은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앞발의 발꿈치에 무게중심을 주고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보내 둔근의 스트레칭에 집중해줍니다.



2. Forward Bend : 안벅지 슬리밍 효과, 긴장감과 스트레스 완화

1단계 두다리를 엉덩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후, 스쿼트와 포워드 밴딩(전굴자세)를 반복합니다.
2단계 들숨에 스쿼트, 날숨에 스트레칭의 패턴으로 진행해주세요.
3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스쿼트로 앉아주고, 다리를 펼 때는 엉덩이를 위로 보내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4단계 다리를 매끈하게 만든다는 상상을 하며 10회 이상 반복하세요.
TIP!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다면, 다리를 펴는 동작에서, 날숨을 좀더 길고 깊게 '후' 소리내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보내 보세요.



3. High Heel Bridge : 복부와 허벅지 슬리밍, 힙리프팅 효과

1단계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2단계 들숨에 다시 엉덩이를 내렸다 날숨에 무릎을 향해 꼬리뼈를 올려 리프팅해줍니다.
3단계 두 발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해 보세요.
4단계 엉덩이와 허벅지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TIP! 매일 자기전에 하기에 부담없고 무릎에도 안전한 운동이니, 허리 약하신 분들도 꾸준히 매일 30회를 목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4. Legs Up The Wall : 다리 부종 완화, 숙면 보장

1단계 두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2단계 천천히 두다리를 벌려 스플릿 자세를 진행합니다.
3단계 두 다리를 최대한 뻗고 벽에 밀착시키세요.
4단계 바닥이 아닌 침대 위에서 자기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TIP!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자주 해주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부종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HURAM 성형외과

한 재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유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유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해 고민은 후유, 흉터 걱정 없습니다.
최고의 선형비율로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한국·미국·일본의 3국 협력형 의료 서비스 유람의료관광의 최
선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형외과 154만 원	성형외과 154만 원	성형외과 660만 원	HURAM 성형이벤트 100만 원 할인
안면 330만 원	안면 264만 원	안면 220만 원	안면 550만 원
안면 220만 원	안면 220만 원	안면 220만 원	안면 110만 원

31599-924-16-99-132288

김소은
31599-924-16-99-132288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맨체스터-보스톤 2023 미국내 최고 공항

트레블+레저 맨체스터 공항을 미국내 최고로 보스톤 최고 호텔은 뉴베리 보스톤 호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맨체스터에 위치한 맨체스터-보스톤 공항이 미국내 최고의 지역공항으로 선정됐다.

여행 매거진 트레블+레저는 12일 보스톤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맨체스터-보스톤 공항을 최고로 선정했다. 친절하고 정확한 지식을 보유한 공항직원들과 아메리칸, 아벨로, 사우스웨스트, 스피리트, 유나이티드항공 등의 취항으로 인한 편리함이 선정 이유다. 이 공항은 연간 약 1백70만명이 이용한다.

이와 함께 프로비던스에 위치한 TF 그린 공항도 미국내 공항 순위 6위에 선정됐다. 신생 브리지어웨이의 취항은 TF그린 공항에서 LA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는 등 편리함을 주고 있다. 아메리칸, 브리즈, 델타에어, 젯블루,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취항한다.

특히 로건 공항이 최근 섬너터널을 폐쇄하는 등의 문제와 여름 피서객의 증가로 복잡거려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 두 공항은 좋은 대안으로 거론된다.

'Travel + Leisure' s list of the top 10 domestic airports of 2023.

1. Manchester-Boston Regional Airport, Reader Score: 85.31 (out of 100).
2. Indianapolis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81.10.
3. Tampa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80.08.
4. Minneapolis-St. Paul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9.93.
5. Portland (Ore.)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9.44.
6. T.F. Green Airport, Reader Score: 78.80.
7. Savannah/Hilton Head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8.47.



8. Palm Beach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6.15.
 9. Salt Lake City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6.14.
 10. Jackson-Medgar Wiley Evers International Airport (Mississippi), Reader Score: 75.88.
- 한편, 보스톤은 독자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도시에서 14위에 올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 1위에 선정됐다.
- 한편 미국내 최고의 호텔에 뉴베리 보스톤 호텔이 시카고의 페닌슐라 호텔에 이어 2위에 선정됐다. 트레블+레저 독자들은 호텔의

- 룸과, 위치, 서비스, 음식 그리고 가치 등을 바탕으로 보스톤내의 최고 호텔을 선정했다. 다음은 보스톤의 최고 호텔 순위다.
- 'Travel + Leisure' s list of the top 10 Boston hotels of 2023
1. The Newbury Boston, Reader Score: 97.71 (out of 100)
 2. Four Seasons Hotel One Dalton Street Boston, Reader Score: 94.17
 3. XV Beacon, Reader Score: 93.04
 4. Four Seasons Hotel Boston, Reader Score: 89.61

5. Mandarin Oriental, Boston, Reader Score: 89.60
 6. The Langham, Boston, Reader Score: 89.50
 7. Hotel Commonwealth, Reader Score: 89.44
 8. Omni Boston Hotel at the Seaport, Reader Score: 89.07
 9. Liberty Hotel, Reader Score: 88.51
 10. Boston Harbor Hotel at Rowes Wharf, Reader Score: 88.08
-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 **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미 물가둔화에 '7월 마지막 금리인상' 솔솔... '더 같것' 신중론도

단기 국채금리↓ · 증시↑ · 달러 가치↓ ...금리 인상 전망 완화 반영 전문가들 1회 추가 인상에 무게... '한번으로 안심 못 해' 반론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말로 끝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3.0% 올라 시장 전망치(3.1%)를 소폭 하회했다.

작년 같은 달 미국의 CPI 상승률이 9.1%로 최정점을 찍은 지 꼭 1년 만에 옴폭이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전체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꺾인 것만 해도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더욱 고무적인 내용도 많다.

연준이 헤드라인 CPI보다 더욱 정확한 물가지수로 간주하는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8% 올랐으나, 시장 전망치(5.0%)를 하회했다. 2021년 3월 이후 최소폭 상승한 CPI와 거의 비슷하게 근원 CPI 역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옴폭이 작았다.

지난 4~5월 두 달 연속 4.4%(전월 대비) 급등했던 중고차 가격이 6월에는 0.5% 하락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차질 해소로 신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고차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복 여행' 수요를 타고 치솟던 여행·레저 물가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

6월 항공료는 전월보다 8.1%, 전년 동월보다 18.9% 각각 급락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 폭을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

식료품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지만 5월(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6.7%)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특히 미국에서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던 품목 중 하나인 달걀값이 작년보다 7.9% 하락한 게 반가운 소식이다.

개별 품목 중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주거비용은 6월에도 7.8% 치솟아 전체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지만, 곧 크게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민간 통계로는 두어 달 전부터 주택 임대료 상승 속도가 거의 팬데믹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최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체결된 렌트 계약들이 정부 통계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걸린다는 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연준의 7월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이 5.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94.2%를 기록, 전날(93.0%)보다 올랐다.

다만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는 9월에 금리 상단이 5.75%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전날 22.3%에서 13.2%로 줄어



들었고, 11월의 금리 상단을 5.75% 이상으로 보는 견해도 전날 42.4%에서 28.0%로 감소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치는 낮춰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만큼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이러한 추세가 최소 두 달 이상 지속돼야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빌 더들리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회계·컨설팅회사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이번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집리크루터의 수석이코노

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연준이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나 워밍 미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6월 CPI 상승률에는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영향을 끼쳤으면서 "이달 FOMC에서 7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이날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4.894%에서 4.736%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뉴욕증시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1년여 사이 최저로 떨어진 점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

반면 노동시장 과열로 근로자 임금이 아직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6월 인플레이션 둔화의 가장 큰 원동력인 에너지 물가(전년 대비 16.7% 하락)의 재상승 가능성이 불안 요소

로 꼽힌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최근 배럴당 76달러를 넘어 6월 말보다 7% 이상 올랐다.

게다가 6월 CPI에는 기저효과가 컸고, 6월 에너지·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및 식료품 물가 등은 전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도 경제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 고위인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물가상승률은 아직 너무 높다"며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강해질 것이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착한다면 정책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안이 경험받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과 박성진
• 2008년 수공리도
• 2019~2021년 수공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유람 인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장/타각적검정/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인입 / 인저삼경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만능필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구조증 / 시신경파악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인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정기비행은 개인별 노년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 직항권 발급 수 있습니다.

유람고객센터 Call for Free!

☎ 1-844-OOHARAM(1-844-364-8726)

☎ 010-340-4341 | E: yura@yna.co.kr

🌐 yura.com | www.sunmoeye.com

"인류의 눈 바꿨다" 제임스웹 1주년... '별의 탄생' 사진 공개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상주의적 질감으로 담아낸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우주 사진이 처음으로 인류에 공개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을 공개했다.

NASA는 1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JWST가 촬영한 1주년 기념 사진은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상주의적인 질감으로 담아냈다"면서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3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로 오피우치'(Rho Ophiuchi) 구름 복합체(cloud complex)를 촬영한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형성 지역인 로 오피우치의 지름은 0.5광년(약 4730km)에 달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사진에는 이미 완전히 형성됐거나 아직 형성 중인 별 50여개가 포착됐다.

제일 어두운 부분은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두꺼운 먼지가 원시별을 형성하고 있다고 NASA는 전했다.

사진 속 별의 질량은 대부분 태양

과 비슷하거나 작다.

우측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는 붉은 선 2개는 원시별에서 방출된 수소가스나 먼지가 우주의 다른 물질과 충돌해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NASA는 이를 두고 "마치 갓난아가 세상을 향해 팔을 뻗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다.

중앙에서 하얀 성운에 둘러싸인 채 밝게 빛나는 별의 이름은 'S1'이다.

S1은 사진 속 별 중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유일한 별이라고 NASA는 밝혔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JWST는 불과 1년 만에 먼지구름을 들여다보고 우주의 먼 구석에서 처음으로 빛을 관측하는 등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변화시켰다"면서 "모든 새로운 이미지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JWST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최고 사양의 우주망원경이다.

총 100억 달러(12조7천억원)가 투입된 이 망원경은 18개의 금 코팅 베릴륨 육각형 거울로 구성된 지름 6.6



로 오피우치(Rho Ophiuchi)

m의 주경을 갖추고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관

측하는 허블망원경과 달리 파장이 길어 우주의 먼지와 가스구름을 뚫고 더 멀리 가는 근적외선, 중적외선 파장까지 포착한다는 설명이다.

NASA는 지난해 7월 12일 JWST 발사 후 처음으로 이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 5장을 공개한 바 있다.

hanju@yna.co.kr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정부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日과 실무협의 조속착수"

일일브리핑... "한국 전문가 참여 부분도 후속 조치에 포함" "후쿠시마 괴담 자료집 비판에 "올바로 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

(서울=연합뉴스) 정이관 기자= 정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에 일본 측이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핸들링 주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조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지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일본 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 "尹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용인"...한일정상회담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를 승인하고 일본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핑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다"고 따졌다.

ses@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LY 14th - JULY 20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COOL SUMMER RECIPE: KOREAN CHILLED CHICKEN NOODLE SOUP

When the sweltering heat has stolen your appetite, coax it back with the chilly goodness of Korean chicken noodle soup!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초계국수 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Honey Ataulfo Mango 해니 아탈포 망고 BOX \$12.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Kabocha 단호박 LB \$1.49	California White Peach 캘리포니아 백도 LB \$3.99	California Korean Melon 캘리포니아 참외 BOX \$19.99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BOX \$24.99	Hass Avocado 해스 아보카도 EA \$0.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라이프용) LB \$12.99	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LB \$7.9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0.99	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13.99
Fresh Boneless Pork Shoulder Butt 생 뼈없는 돼지 목전자살 LB \$4.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hilean Sea Bass Steak 칠리안 피베스 스테이크 LB \$19.99	Frozen Squid 동해산 선동 오징어 PRODUCT OF KOREA PREMIUM/LB \$5.99
SUHYUP Frozen Yellow Tail 수협 방어 PRODUCT OF KOREA LB \$1.99	Grilled Dried Filefish Fillet 2 Pieces 구운 쥐치포 2마리 1.41 OZ/PKG \$1.99
HWAWOODANG Frozen Stir-fry Cuttlefish/Squid 화우당 갑오징어 / 오징어 볶음 SPKX12.69 OZ/PKG \$3.99	Frozen Snapper 홍도미 LB \$8.99

SMART CARD MEMBER ONLY

PULMUONE U.S. No.1 Calrose White Medium Grain Rice 풀무원 바른쌀 20 LB \$24.99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15.99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청파래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11.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6.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5.99	CHUNG JUNGONE Sunchang Doenj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6.17 LB \$7.99	HAIJ Seasoned Bean Paste 해오름 시계절 원조 쌍장 1.1 LB 2\$5	HAIJ Dumplings 해오름 만두 KIMCHU VEGETABLE FRIED 2.65 LB \$4.99	BEYOND THE OCEAN Frozen Octopus, Sliced 바다너머 절단 낙지 1.5 LB \$12.99
K TOWN Dukboki Simmered Korean Rice Cakes 케이타운 그때 그맛 국물 떡볶이 ORIGINAL/MAD SPICY 1.32 LB \$4.99	CHUNG JUNGONE Sweet Potato Glass Noodles 청정원 민속 당면 1.1 LB \$5.99	CHUNG JUNGONE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5	YOODONG Canned Mackerel 유동 고등어 캔 14.1 OZ 2\$4	HAITAI Baked Potato Snack 해대 구운감자 0.95 OZ X 5 EA/PKG \$3.49
BINGGRAE BANANA/STRAWBERRY/MELOON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딸기/멜론 우유 6.6 FL OZ X 6 EA/PKG \$4.99	KWANGDONG Vita 500 광동제약 비타500 100 ml X 10 BTL/PKG \$5.99	ORGANIST Morocco Argan Oil Shampoo/Conditioner 오가니스트 아르간오일 & 세라마이드 샴푸 & 컨디셔너 500 mL EA \$6.99	Ceramic Round Container Set 세라믹 원형 찬기 세트 (로즈패턴) 3 PCS/SET \$9.49	KOTO Detachable Electric Bamboo Grill 코토 분리형 대나무 전기그릴 37.5 X 25 CM \$37.99

천년 김치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1.877.427.733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재승 DIRECTOR 781.654.5281 a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l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hb@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아미니 김 617.978.5887 amkim@bostonpremierrealty.com	 김지연 978.484.7843 jiykim@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28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루 617.788.7828 peterlu@bostonpremierrealty.com	 자니 피 978.888.3718 janepi@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617.605.328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서다 슌 617.888.5787 sd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어스 켈 617.455.7780 grea@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88.8823 hsw@bostonpremierrealty.com	 마사 송 713.500.0987 masasong@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피 613.507.9887 peterpi@bostonpremierrealty.com	 손광택 617.910.3888 skt@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영 617.977.8887 j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88.3817 jst@bostonpremierrealty.com	 정계숙 781.888.1758 jst@bostonpremierrealty.com	 최영진 617.215.1987 yj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기 617.343.9728 jklee@bostonpremierrealty.com	 레이첼 박 617.827.7885 rachel@bostonpremierrealty.com
 Tiffany Woodfolk 617.738.5838 twood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738.8887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ou 603.201.1018 shirleyzhou@bostonpremierrealty.com	 Victoria Yu 617.888.7873 victoriayu@bostonpremierrealty.com	 Olivia Zhou 617.277.8878 oliviazhou@bostonpremierrealty.com	 Li Li Jiang 781.888.8117 lili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686.9829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noma 978.873.88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o 617.215.8838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16.370.88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888.7919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822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Angela Zullo 774.286.6199 angel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시 781.886.0488 jeison@bostonpremierrealty.com	 이진희 857.288.0434 jinhee@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88.463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Mimi Delinger 413.337.1586 mim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북 고체연료 ICBM 위협 현실화하나...美본토 기습공격 능력 과시

고성능 고체연료·엔진 노즐에도 고성능복합재 적용...
전문가 "기술수준 상당"
'시간지연 분리 시동' 없이 최대 출력으로 정점고도 높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를 기습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이동식발사차량(TEL)로 이동이 안정적이고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은밀하게 기동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발사 동향을 사전 식별해 선제 타격하는 한미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쏘아올린 화성-18형은 최대 정점고도 6천648.4km까지 상승해 거리 1천1.2km를 4천491초(74분51초)간 비행했다.

지난 4월 1차 시험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3단 로켓인 화성-18형의 1단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됐고, 2·3단부는 고각으로 발사됐다. 그러나 최대 출력을 내 1차 발사 때 3천km 이하였던 정점고도가 이번에는 배 이상 높게 올라갔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1차 때는 '시간지연 분리 시동방식'을 통해 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으나, 이번에는 '시간지연' 없이 미사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2단 로켓을 점화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두 차례 모두 1단만 정상 각도로 발사한 데 대해서는 "신형 중대형 고체로켓모터에 대한 기술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요격 무력화 차원의 복합 궤적 운용기술 확보 차원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1차 시험발사 때는 첫 시도인 점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설계 목표상 최대치를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차 시험발사는 처음이다 보니 제한적으로 시도했을 것"이라며 "1차 때 큰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는 최대출력으로 최대사거리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기존 화성-15·17형을 시험발사할 때도 1차 발사 때는 최대 고도보다 낮게 발사했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출력으로 발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화성-18형에 적용된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에 적용된 소재, 정점고도, 비행시간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도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 2차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엔진부의 화염이 붉은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치마 모양으로 퍼지는 것은 고체연료 연소시 분출되는 화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붉은 기가 도는 것은 고체연료로 성능이 좋은 NEPE(Nitrate Ester Polyester)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NEPE를 태우면 질산에스테르로 인해 화염이 붉은빛이다. 기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시리즈에 사용된 HTPB(Hydroxyl-terminated polybutadiene)가 연소할 때는 하얀색 화염이 분출된다.

고체연료로 ICBM급 사거리를 내려면 출력이 좋은 NEPE를 사용해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천648.4km까지 상승해 거리 1천1.2km를 4천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구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NEPE를 고체연료 ICBM에 사용하고 있다.

화성-18형이 70분 이상 장시간 비행했다는 점에서 엔진 노즐목(Throat)에도 내열성이 강한 탄소-탄소(C-C)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는데 당시 C-C복합재로 만든 탄두의 첨두부와 엔진 노즐목이 공개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전부터 ICBM에 사용하기 위한 고성능 복합재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물이 화성-18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고성능 추진체인 NEPE 적용과 고성능복합재로 만든 엔진 노즐부 개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성능을 최대한으로 구현했을 때의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흔적도 엿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2차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두부 좌우 측에 달린 안테나가 확인된다"며 "북한도 최대 성능을 낼 때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상 각도 발사와 고각발사를 섞어 쏜 화성-18형의 정점 고도가 6천km를 넘었다는 것은 정상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1만5천km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서 발사한 화성-18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

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 신고 발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 정찰 위성 등으로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북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이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

으며, 미국에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두 번째 시험발사의 성공을 통해 북한이 고추력 중대형 고체로켓 추진체 개발 및 기술을 검증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 ICBM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지
2023년 기준

- 2월 18일**
평양순안일대에서 동해로 '화성-15형' 1발 발사
(최고고도 5,700km, 사거리 900km)
- 3월 16일**
평양순안일대에서 동해로 '화성-17형' 1발 발사
(최고고도 6,000km, 사거리 1,000km)
- 4월 13일**
평양일대에서 동해로 '화성-18형' 첫 발사
(최고고도 3,000m 미만, 사거리 1,000km)
- 7월 12일**
평양일대에서 동해로 '화성-18형' 1발 두번째 발사
(최고고도 6,000km, 사거리 1,000km).
역대 북 발사 미사일 기준 최장시간(74분) 비행

ICBM '화성-18형' (고체연료)
사진: 조선중앙통신
자료: 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진흥사업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HCP Foundation

곧 도라!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데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됩니다.

www.kcp.or.kr

성당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THE ASSUMPTION PARISH OF BOSTON

하느님에 대하여,
권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b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bdaveluy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대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7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령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마이크로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인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샵 컴퓨터 세팅,
설치, 홈페이지, 마크업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us@depweb.com
web: depweb.com

다들컴퓨터 781.858.1155, 781.727.4826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톤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Welcome to GYEONGBUK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특판전

까다롭게 엄선한 경북 우수 농수산물 특판전을 소개합니다.
 고향의 내음이 가득한 제품들을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Come enjoy our annual festival of groceries from
 the northern province of Gyeong Sang. Hurry in, our event ends soon.



JULY 14th - JULY 27th, 2023



DAEGE GIM
 Snow Crab Seaweed Snack
 대게김 0.14 OZ X 16 EA/PKG
\$5.99



Ulleungdo Mussel • Myeong-i/ Dokdo Red Crab Soy Sauce
 울릉도 홍합 명이/ 독도 홍게 맛간장
 18.4 FL OZ
\$6.99



Ulleungdo Boiled Bujigaeng-ie
 울릉도 참삼지기 삶은 부지갱이
 1.1 LB
\$6.99



Ulleungdo Myeongyi Pickle
 울릉도의 보배 명이절임
 4.58 OZ
\$4.99



POHANG WELLBEING Rice Noodle
 포항 웰빙 미가면 쌀국수
 ANCHOVY/SEAFOOD/ KINCHI/BEET ROOT
 3.24 OZ X 5 EA/BOX
\$7.99



Mac Soybean/Hot Pepper Paste
 맥 된창/참쌀 고추장
 SOYBEAN (2.64 LB)/HOT PEPPER (2.2 LB)
\$24.99



Jagalchi Yeontanbul Sea Eel
 참도깨비 자갈치 연탄불 곰장어
 0.77 LB
\$9.99



Assorted Fillets
 비린내 & 연기없는 모든 생선구이
 1.1 LB
\$9.99



HANDO FOOD Hansangung Delicious Scorched Rice
 한상궁 맛나 누룽지/보리 누룽지
 ORIGINAL/21.16 OZ BARLEY/21.16 OZ
\$4.99 \$5.99



BEOM CHON Fermented Saury "Black"
 범촌 포항 발효 과메기
 2.47 OZ
\$5.99



BEOM CHON Spicy Cold Raw Fish Soup
 범촌 포항 발효 물회
 SQUID/10.58 OZ
\$3.99



BEOM CHON Home Side Dish Trio
 범촌 집 반찬 3총사 (PERILLA/BEAN) LEAVES/MYEONGYI
 4.6 OZ X 3 EA/PKG
\$6.99



Oyster Soup/Eel Soup with Dried Radish Leaves/ Namwon Sancho Loach Soup
 정성드려 맑은 굴국/ 시래기 장어탕/ 남원 산초 추어탕
 11.28-18.69 OZ
\$4.99



Ulleungdo Dried Squid
 울릉도 오징어
 7.76 OZ (3 PCS/PKG)
\$21.99



Rice Cake
 상주꽃감 찹쌀떡/안절미/리얼 고구마찰떡
 Dried Persimmon with (Red Bean/Soy Flour)/ Sweet Potato/5.6 OZ - 13.5 OZ
\$2.99 -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45) 은퇴 투자 부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부잣집에서 탄생, 놀라운 장사비결, 전문적인 직업, 부자와 결혼, 등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가? 필자가 자신하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는 모두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의한 나라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주식시장이다. 최근 미국 기업인 애플(Apple)의 시가총액이 \$3 trillion으로 늘어났다. \$3 trillion이란 3,000 billions 혹은 3 million millions를 말하는 놀라운 숫자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연간 총생산량(GDP) \$2.78 trillion보다도 더 많고, 중국의 모든 기업(2,119)을 합한 총자산(\$2.5 trillion)보다도 크며, 인도 전체 주식 시장의 2배가 되는 숫자이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미국을 상대로 내기(Betting)하지 말라' 는 이유이다.

대학 교수인 맥케인 박사는 인간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이 점점 더 길어지게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고 발

표(Americans are living longer and prospering, Richard B. McKenzi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WSJ, June 27, 2023) 했다. 요약하면 67세인 빌 케이트의 자산 \$117 billion이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주식시장 투자로 10년 후에는 \$117 billion 늘어나서 자산이 두 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일반인도 은퇴 생활이 10년 혹은 20년 이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 많은 사람이 주식은 도박(Casino)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박과 주식 투자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도박은 시간이 갈수록 돈을 잃지만, 주식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투자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도박처럼 투자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가 일시적인 시장 하락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마음과 함께 투자하면 높은 이익이 돌아온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전체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가 아닌 제대로 투자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자산이 개인 순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자산이란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부자 탑 10%가 주식시장의 85% 차지하고 있다. 이 뜻은 천문학적인 자산 증가의 혜택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미국 인구의 절반인 50%는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거의 없다.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봉급이나 자영업 수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자면서 돈 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 라고 언급했다. 미래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정확

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랜 역사는 우리에게 기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의 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어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수익률 10%란 투자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처럼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 이란 말처럼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기간에 투자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하지만, 반대로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는 한인 동포 모두가 제대로 하는 투자로 은퇴 후에도 큰 부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심청전'의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거타지설화(원문 진성여왕거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아찬(2등급) 양패(良貝)는 왕의 막내 아들이었다.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후백제의 해적들이 진도(津島)에 진을 치고 있다하여 궁수 50명을 뽑아 그를 호위하게 하였다.

배가 곡도(鵝島)에 닿으니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열흘이 넘게 그곳에서 묵게 되었다. 그래서 양패는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였다. 점을 친 사람은 양패에게 섬에 신지(神池)가 있으니 그곳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제물을 차려놓으니 못물이 한 길 정도 솟아올랐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활 잘 쏘는 궁수를 한 명을 섬에 남겨두면 순풍을 얻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양패는 꿈에서 깨어 누구를 남겨두면 좋겠냐고 물으니, 나무조각 50개에 모든 궁수들의 이름을 각각 써서 물속에 던져 제비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의 의견에 따라 했더니 거타지의 이름이 쓰인 나무조각만 물에 갈아얕고 나머지는 모두 떠올랐다. 그래서 거타지만 남겨두고 다시 출항을 하니 순풍이 불어 배는 잘 나갔다.

한편, 거타지는 홀로 섬에 남아 근심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왔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神)이요, 매일 해 뜰 무렵

에 증(僧)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니리 주문을 외우고 이 못을 세 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중은 내 자손의 간장(肝腸)을 빼먹곤 하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반드시 또 올 것이니 그대는 활로 중을 쏘아주시오"

이에 거타지는 노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노인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해 뜰 무렵, 거타지가 숨어서 기다리니 과연 중이 와서 주문을 외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이때 거타지는 활을 쏘아 중을 명중하였다.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하여 죽었다. 이에 노인이 물속에서 나와, "공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공에게 아내로 드리겠소"

노인은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용 두마리를 시켜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서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로 가게 하였다. 이를 본 당나라 사람들은 황제에게 고하였고, 황제는 "신라의 사신은 정녕코 비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양패를 위하여 연회를 크게 베풀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선물하였다. 거타지는 신라로 귀국한 뒤 품속에 있던 꽃가지를 꺼내니, 이윽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였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 여생을 함께 잘 살았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의 내용이다. 참고로 삼국사기에는 진성여왕 7년에

(893년)에 병부시랑 김처회(金處誨)를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원에서 양길, 완산에서 견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듬해는 궁예가 하슬라(강릉), 저족(인제군), 성천(화천군), 한주(한산주), 부약(철원) 일대를 모두 장악하였으며, 877년에 태어난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46) 효공왕 김요(金堯)는 제49대 헌강왕의 아들이지만, 왕후나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다. 884년경 어느날,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왕은 장막에서 야합을 하였고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가 김요이다. 886년 헌강왕이 적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는 아직 돌이 되지 않았고, 또한 서자였기에 왕위가 헌강왕의 동생인 김황(정강왕)에게로 갔다. 정강왕마저 이듬해인 887년에 사망하자, 왕위는 역시 동생인 김만(진성여왕)에게로 갔다. 진성여왕이 897년 사망했을 때 아들이 있었다면, 차기는 김요(효공왕)에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에서 효공왕이 유일하게 진골의 신분이 아닌 왕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하태 HAITAI

JULY 13th - JULY 20th, 2023

**HAITAI
 BABAMBAR X NOUGAT BAR**

해태 바밤바X누가바
 2.4 FL OZ X 8 BARS/PKG
 4 Honey & Chestnut + 4 Vanilla



\$4.99

← REG. \$8.99

RETURN OF THE DUO!

HELLO HOME
 SMILE, YOU'RE HOME!

JULY 13th - JULY 20th, 2023

**HELLO HOME
 PIGMENT PAD**

헬로홈 한국산 최고급
 면 60수 피그먼트 패드



\$25.99

← REG. \$49.99

PINK/WHITE/BLUE
 QUEEN SIZE - 150 CM X 200 CM/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TS "성적 · 인기 · 돈은 큰 의미 아냐...우린 계속 달린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금의 저희에게 성적이나 인기, 거기서 따라오는 돈 같은 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민)

"저희는 '아미(방탄소년단 팬)가 웃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 나가고 있어요."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솔직하게 풀어낸 책 '비욘드 더 스토리 : 텐 이어 레코드 오브 BTS'(BEYOND THE STORY : 10-YEAR RECORD OF BTS, 빅히트뮤직)를 9일 내놨다.

멤버들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옛 소속사 사옥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고민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데뷔 초기, 인기를 쌓아가던 시절, 월드스타로 부상한 이후 등 지난 10년의 궤적을 가감 없이 들려줬다.

방탄소년단 팀명은 '10대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막아 주는 소년들'이란 의미로, 데뷔 이후 신인상도 받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제이홉은 데뷔 준비 과정에 대해 "오아악!" 하면서 연습해서 모니터

링하고,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 보고, 또 '오아아아!' 연습하면 밤 10시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로서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출신이었다는 점, 진한 힙합 색깔과 K팝 아이돌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는 점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멤버들은 어느 래퍼로부터 디스(Diss· 깎아내림)를 당한 일, 가사가 논란을 빚은 일, 재계약 시점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일 등 힘들었던 시기에 관해서도 털어놓았다.

책은 방탄소년단이 멤버들의 생각과 경험을 음악으로 직접 표현하는 팀이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시종 강조한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을 집대성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명이 '프루프'(Proof)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데뷔 초창기엔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선후배 가수도 왕왕 있었다고 했다.

TV·라디오에서 유튜브와 SNS로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던 시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기민

한 홍보 전략도 눈길을 끈다.

뷔는 멤버들을 가리켜 "제가 볼 땐 우리 멤버들 다 '또라이'다. 미친 놈들만 가득 있어서 독기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무대를 사랑하는 감정은 더 커지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은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작 음반으로 기록된 '화양연화'·'러브 유 어 셀프'(LOVE YOURSELF) 시리즈를 거치며 신인에서 1위 가수로, 대상 가수에서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슈가는 인기가 급상승하던 2017년 무렵의 기분을 "제가 갑자기 무협지 속 주인공이 됐고,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렸는데, 어찌 다 보니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도 "그당시에도, 지금도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나, 저희가 끌어내는 많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응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게 한참 올라갔다, 원치 않게 고꾸라질 수도 있으니까"라고 부담과 두려움도 토로했다.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아미에 대한 애정도 빼놓지 않았다.

RM은 "저는 제 팬을 만나면 사실 너무 안아 주고 싶다"면서도 "그렇게 하는 동시에 환상을 팔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경계 사이에 유리로 된 다리를 놓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순간의 소감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진은 의외로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1위를 해도 체감이 잘 안됐다"며 "체감이 지금까지 받은 상이나 순위 중에 제일 안 다가왔다"고 말했다.

반면 제이홉은 "아침에 일어나서 (순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응했다.

7월 16일 - 7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p> <p>● 운수: 긍정적인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1일 길일. 16, 20일 주의.</p>	<p>소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p> <p>●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운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2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범띠 활기를 찾게 되는</p> <p>●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회회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 문제에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p>
<p>토끼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p> <p>●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젯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6, 19일 길일. 17, 18일 주의.</p>	<p>용띠 행운이 함께 하고</p> <p>●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19일 길일. 16, 18일 주의.</p>	<p>뱀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p> <p>●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2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말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p> <p>●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양띠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p> <p>●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하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원숭이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p> <p>●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닭띠 부지런히 노력해야</p> <p>●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 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개띠 시야가 환해지면서</p> <p>●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기본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돼지띠 짐고 넘어가야</p> <p>●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짐고 넘어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정우성 · 유해진까지 가세...한국영화 '여름 대전' 판 더 커졌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올여름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한국 영화 4편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크호스가 될 만한 2편이 추가로 '여름 대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양한 장르와 배우를 내세운 이들 6개 작품은 8월 한달 동안 치열한 관객잡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영화계에서는 '빅4' 대전이 펼쳐진 지난해 여름처럼 출혈경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극장가 관을 키워 한국영화 시장이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7월 영화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주연하고 연출한 액션 영화 '보호자'는 8월 15일 개봉한다.

정우성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장편 영화로, 10년 만에 출소해 딸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들의 추격전을 그린다. 정우성이 직접 주인공 수혁 역을 맡았고 김남길, 박성웅 등 쟁쟁한 배우들도 합류했다.

유해진 주연의 코미디 영화 '달짝지근해: 7510'는 '보호자'와 같은 날 개봉해 정면 승부를 펼친다.

'완득이'(2011), '증인'(2019) 등을 연출한 이한 감독의 신작인 이 영화는 천재적인 제과 연구원 치료(유해진 분)가 긍정적인 일영(김희선)을 만나 인생의 맛이 바뀌는 이야기를 담는다.

정우성과 유해진 모두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인 데다 장르 역시 여름에 강한 액션과 코미디여서 대작들 사이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순순까지는 '빅4'로 불릴 만한 대작 한국 영화가 연달아 개봉한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주연 김혜수·염정아 등)가 오는 26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한 주 뒤인 8월 2일에는 김용화 감독의 SF 영화 '더문'(설경구·도경수)과 김성훈 감독의 버디물 '비공식작전'(하정우·주지훈)이 한날 개봉한다.

또 한 주 뒤인 8월 9일에는 엄태화 감독의 재난 영화 '론크리트 유토피아'(이병헌·박서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다음 주 '달짝지근해'와 '보호자'까지 포함하면 한달 동안 6개의 작품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기에 개봉했다면 최소 '중박'은 했을 작품들이 너무 쟁쟁한 경쟁작들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배급사 입장에서 여름 극장가가 포기하기 어려운 최대 성수기 중 하나지만, 여기에 올라왔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 개봉 경쟁이 자칫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급 작품들은 대작 틈에 끼여 입소문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차라리 좀 아껴뒀다가 추석 기간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작 영화들이 여름 성수기를 노리고 개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공급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개봉작 면면을 보면 각 배급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작품들로 보이는데, 애매한 시기보다는 차라리 '큰물'에 뛰어들어 대작끼리 경쟁하면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 때 쌓아둔 이른바 '창고 영화'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 찍은 작품들이라 관객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형호 영화시장분석가는 "작년부터 여름 관람객 전체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올여름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영화 시장이 예전처럼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가 많이 나와야 전체 관객 수가 늘어나 영화 시장이 살아난다"며 "관객 입장에서 대작이 많이 나오면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덧붙혔다.

뉴진스 '슈퍼 샤이', 美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26위

(서울=연합뉴스) 임지유 기자 = 그룹 뉴진스의 미니 2집 선공개곡 '슈퍼 샤이'(Super Shy)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미국 '일간 톱 송' 차트에서 그룹 자체 최고 순위인 26위를 기록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2일 밝혔다.

이 곡은 발매 첫날인 7일 차트에 37위로 진입한 뒤 36위, 32위, 26위로 매일 순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 톱 송' 차트에서도 지난 10일 기준 14위를 기록했다.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Get Up)은 오는 21일 발매된다.

wisefoo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2023년 모국 청소년 초청 Summer Leadership Camp

“세종의 아이들 세상을 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여주를 잇는 꿈이 펼쳐진다. <뉴욕 로고스교회/임성식 목사>와 <여주 자활센터/박문신 센터장>이 화합을 이루어 임성식 목사와 교인들이 한국의 12명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미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어지는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이다.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3명의 스텝들이 참여를 하며 미국에서도 임 목사와 그외 7명의 스텝들을 합하면 23명이 움직이게 되는 큰 행사이다.

이 행사는 2022년 가을부터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뉴욕 로고스교회> 임성식 목사와 사라 박 사모 그리고 신 영 전도사가 함께 진행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겠다는 마음과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은 잠시 뒤로하고 일단 일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2023

년 1월 말 한국을 방문하며 <여주 자활센터> 박문신 센터장과 탁옥남 관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

그 후 <모국 청소년 초청 썸머 리더십 캠프>는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여주를 넘나들며 서로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에 임 목사가 다시 여주를 찾아 참여할 12명의 청소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경험과 체험의 장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청소년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위해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모국 청소년 초청 썸머 리더십 캠프> 일정을 살펴보면 뉴욕 맨해튼(자연사 박물관, 센트럴 파크 등), 보스턴 아이비리그(하버드/MIT/예일 대학교 등), 워싱턴 DC(백악관, 의사당, 링컨, 제퍼슨 기념관

등)을 다녀온 후 동부를 시작으로 서부를 달리는 대륙횡단의 꿈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행복이 차오른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였으니 한참 꿈들이 출렁거리는 나이인 것이다.

8월 3일 뉴욕 출발 -> 사우스 밴드-> 링컨(네브라스카주) -> 콜로라도 모뉴먼트(아치스 국립공원) 더블오 트레킹(모압) -> 캐년랜드 -> 브라이스 캐년 -> 페이지 호스 슈 밴드/앤탈롭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라스베가스 -> 데스 밸리 -> LA 산타모니카 비치를 돌며 8월 14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스텝들은 LAX 공항을 출발 한국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번 7월 한국 방문 중 여주 자활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뉴욕에 참여할 청소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였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만

나며 덩달아 나도 행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서 만날 12명의 아이들과 세 명의 스텝들을 만나며 이미 출렁이는 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 질문도 많았다. 여주 자활센터의 김선옥 간사의 활달함과 재치에 감동을 하고 돌아왔다. 덕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분 좋은 만남을 갖고 돌아왔다.

“모국 청소년 초청 Summer Leadership Camp” 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쓴 임성식 목사가 있다. 이 행사는 어제 오늘에 생각한 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이루고자 했던 사역이었다. 2023년 여름을 통하여 그 길었던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어찌 혼자서 생각만으로 가능했을까. 곁의 사모와 사역자들이 있어 가능했고 교인들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그 꿈을 꾸게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The Buck Stops Here'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 코먼에 가면 조형물이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오리가족이 나란히 걸어 가는 형상물이 있다. 어미오리를 따르는 일곱여덟 마리 어린새끼 오리떼가 인상적이다. 어미는 새끼들을 낳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

The Buck Stops Here. 한국대통령 집무실 책상위에 놓인 팻말이란다. 미국 트루만대통령이 먼저 원조元祖라 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말일게다. 한편, 결정하기에 앞서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다.

반대말이다. 'Pass the buck' 인데 책임을 전가轉嫁한다는 말이다. 나는 몰랐다고 발뺌이며, 내 책임이 아닌 네 책임이라 할 수도 있겠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놓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할까. 무책임이라 한

마디로 말하기엔 뭔가 짹짹하다.

이십여년 전이다.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란 책이 있다. 책에서 책저자 프리드먼이 갈파한 말이 있다. 21세기엔 중요한 직종있는데, 전략가가 먼저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인이라는 거다. 전략가가 급변하는 시대를 설계할 책임이 있을게고, 언론인이야 변화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 구절이다.

잠시 다니러 온 지구 여행을 마치고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멋있게 작별할 줄 알았던 어린 왕자의 그 순결한 영혼과책임성 있는 결단력을 사랑합니다(이해인, 어린 왕자를 위하여 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할데지만,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일을 그르친다면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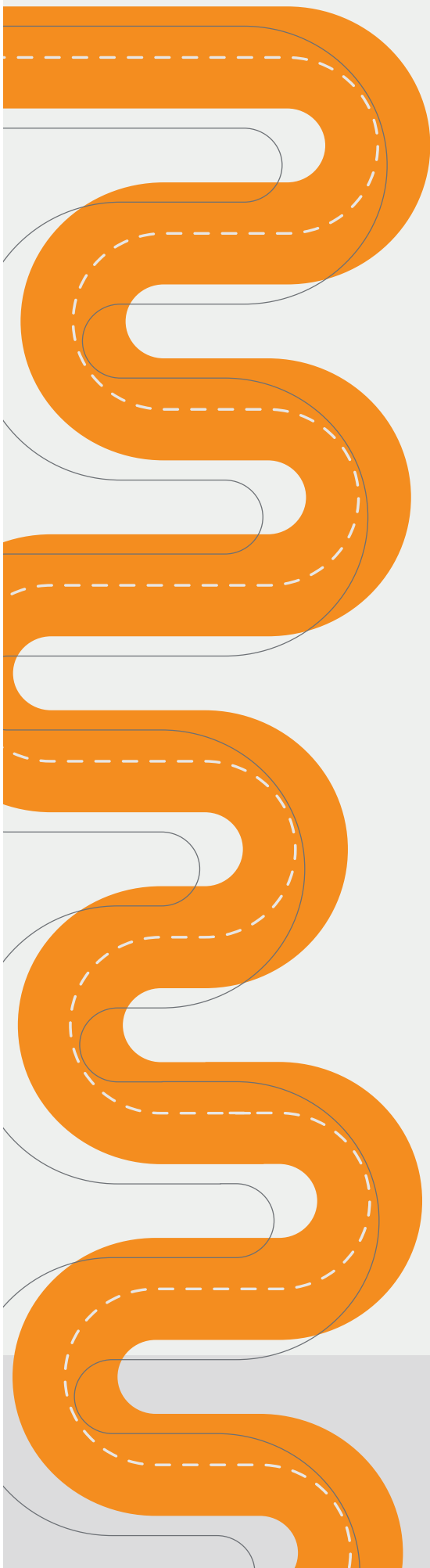
는 손해대로,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큰 상처를 입을 터. 과연 입은 상처는 어떻게 치료 할 것인가 말이다.

Buck 은 숫사슴이라 던데, 사슴에게 받치면 중상입을 게다. 치료도 쉽지 않을 터. 모두가 내탓일 텐데, 남탓은 할 수 없을지니.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누가11:50)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1 단계

필요 서류 준비

#1 신분 및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 여권과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결혼 증명서 두 가지 문서를 제출하세요.

#2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경우, 지원서에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SN(사회보장번호)이 발급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선언서에 서명합니다.

#3 메사추세츠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2 단계

등록을 위한 예약은 여기에서 Mass.Gov/MyRMV



3 단계

연습 면허 시험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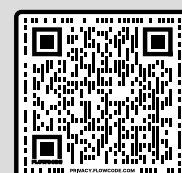


4 단계

Mass.Gov/MyRMV 를 방문하여 도로 주행 테스트 일정을 잡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Mass.Gov/RoadTest 방문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ss.Gov/WFMA
방문 또는 전화
857-368-9362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새벽운동·사우나 피해야 하는 이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윤성보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2021년 701 만명을 돌파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내 성인의 약 34%가 고혈압 증상이 있다. 문제는 고혈압 환자의 28.7%가 자신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두통과 어지러움증, 어느 순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귀울림과 이명, 평소에 없던 코피가 나거나 시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손발이 붓거나 저린 증상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고혈압을 의심

해야 한다.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 각 장기로 혈액을 보낼 때 드는 압력이 혈압이다.

높은 숫자는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혈액을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며 낮은 숫자는 확장기 혈압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소리 없이 병을 만든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은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로 진단하게 된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이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5분 이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을 심장 높이에서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 최소 2회 이상 측정치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고혈압이 무서운 것은 다양한 곳에 파생되는 합병증이다.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과 뇌경색,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는 뇌신경계 질환, 신장경화증과 신부전, 신장종양 같은 신장기능을 악화 시키는 신장질환 등을 일으킨다.

고혈압 치료는 혈압을 낮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치료제도 다양하고 환자 나이나 질병 상황에 따라 약물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우선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고혈압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7가지 생활 수칙이 있다. 즉, 금연/절주, 음식 싱겁게 먹기,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 매일 30분씩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다. 고혈압 환자는 새벽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새벽은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적 운동을 계획한다면 낮 혹은 저녁 시간대에 자신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대중 목욕탕 이용에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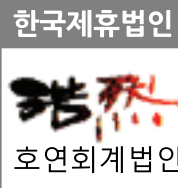
해야 한다. 온탕 이용 후 체온이 급변해 갑자기 찬바람을 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새벽운동·사우나 피해야 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DESIGNED BY: BODA DESIGN STUDIO / bostondesignstudio.com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보스톤 강원도민회 골프대회



상품: 크리스탈 트로피
(강원도지사가 한국에서 제작)
최고급 담채 김치 냉장고
쿠쿠 전기 압력 밥솥
다양한 골프 용품 등

참가비: 1인 \$150, 부부동반시 \$250

식사: 아침- 음료수+김밥,
저녁- 고급 부페식당

Sunday, July 16, 2023

Four Oaks C. C
1 Clubhouse Lane, Dracut, MA 01826

GOLF
TOURNAMENT
2023

7월16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참가문의 박형태 (강원도민 회장) 617-645-9066

이학재 (강원도민 부회장) 617-852-040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미국에서 집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은 FHA 아니면 FHA Loan이 더 가까운 단어일수도 있는데 들어 보셨을 것이다.

그럼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무엇일까?

FHA는 1934년도에 National Housing Act 이율과 mortgage 법을 만들기 위해서 1930년 은행 crisis 후에 생겼다.

FHA는 Government Agency 이다.

정확히 말하면 FHA 하는 일은 Single Family, Multifamily, Manufactured Home 그리고 병원 Loans 이 FHA approved lender

가 돈을 빌려 주었을때 mortgage insurance 를 대어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보험회사라고 들 많이 물으신다.

FHA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가장 많이 하는일이 FHA Loans을 빌릴수 있게 해주고 mortgage insurance를 대어주는 일이다.

FHA Loan 은 자동적으로 mortgage insurance가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우리가 20% 이상을 다운페이할 해야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안 내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

Loan amount 에 0.5% 에서 1.5% 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600,000 Loan amount 는 일년에 \$3000 에서 \$9000 그리고 한달에 \$250 에서 \$750 이다.

그래서 대부분에 First time buyer들이 현금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FHA Loan을 많이 찾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무효는 없다. FHA Loan을 얻으려면 각 은행이 인정하는 가이드 라인에 달해야 한다.

이중에서 가장 큰 예는 Convention Loan 은 인컴에 45%까지 Loan을 주지만 FHA Loan은 인컴에 43%까지이다.

FHA Loan이 가장 잘 나오는분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분들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들, School teachers, 소방관들이다.

그리고 20%에 다운 페이먼트가 없을때 FHA Loan을 찾아 보는게 좋지만 각자에 자격에 따라 꼭 FHA Loan이 좋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리고 은행마다 FHA Loan을 다루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안 다루는 은행도 많다.

우선은 각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이 FHA Loan은 다루는지를 알아보고 안 다룬다고 하면 Local bank에서 알아 보는게 제일 빠르다

면 Local bank에서 알아 보는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 요즘에는 큰은행은 National Wide 이기 때문에 언어에 불편이 있으신 분은 다른 주에 있는 한국말을 하는 뱅커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요즘 같이 이율이 올라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Mortgage를 알고 있으면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집값을 깎는것 보다 모게지 조건을 잘 이용 한다면 한달에 \$700 라는 PMI 를 절약할수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